

올 한해 2만4000명 대상 안전교육

문화재청, 민속마을 주민들·사찰문화재 소유자 등... '문화재보호법' 따라 시행 대상자 특성 고려

문화재청이 올 한 해 동안 민속마을 주민들과 문화재 안전경비원·돌봄 관계자, 사찰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초등학생 어린이 등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펼쳤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했다.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교육(6.4.) ▲민속마을 주민 교육(7.1.~11.20.) ▲문화재 돌봄 교육(6.15.~11.17.) ▲초등학생 어린이 교육(3.2.~12.) 등으로 구분해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중요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6.29.~7.15.)와 하반기(10.26.~11.6.)로 나누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의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 시행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한 문화재 소유자·이용자·관리자의 초등대응능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비대면 교육방식 추가도입을 검토했고, 교육대상별 문화재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해 전국 민속마을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



문화재 안전교육.

〈사진=문화재청 제공〉

는 등 문화재 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문화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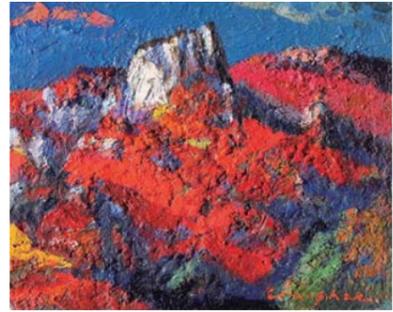
한 폭의 아름다운 서양화 '한눈에'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내년 1월 10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군산 일요화가회전'을 개최한다.

일요화가회는 지난 1965년 서울에서 처음 창립된 미술동호인 단체인 전국 23개 지역에 결성돼 있으며, 매년 지역을 바꾸어가며 일요화가회 스페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군산 일요화가회(회장 김순덕)는 1993년에 결성돼 야외스케치 활동과 연수 등을 통한 예술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군산일요화가회의 27번째 전시로 지도교수 원창희를 포함 18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 작품은 올해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떠났던 야외 스케치 활동의 결과물로 원창희 작가의 '내장산'(유화), 소병근 작가의 '어둠속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서 내년 1월 10일까지 '군산일요화가회전'

희망들이'(한지 폴라주 아크릴) 등 서양화 27점이다.

군산일요화가회 회장 김순덕 작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에서는 올해 상반기중 故하반영 화백의 상설전을 개최했으며, '군산일요화가회전'은 7월부터 시작된 전승택 작가의 전각·서각 작품전, 이은숙 작가의 문인화전, 문중배 작가의 서예전에 이은 네 번째 지역 작가 참여전이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장미갤러리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지역 출신의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와 홍보물 제작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촉구

공수처 설치·윤석열 자진 사퇴·시민검찰제 추진 등 공동 성명 발표

작가 654명이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했다.

작가들은 지난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시민검찰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우리에게 쫓겨나고 있는 권력을 되찾아달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

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가들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며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 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진안예술인의 밤' 성료

예술상 수상자로 김상영
진안미술협회 회원

(사)한국예총 진안지회(이하 진안예총)는 지난 17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제13회 진안예술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진안예술인의 밤 행사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참석인원과 행사 진행을 최소화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간소하게 진행했다.

지난 1년간 진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주는 '진안예술상' 시상에는 진안미술협회 김상영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춘성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올 한해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아쉬움이 많지만, 항상 진안예총이 문화 예술의 중심에서서 군민의 삶을 높여주었다면 함께 애쓰신 진안예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상영 의심되면 '1339' 로

이번엔 궁궐과 한복의 조화

문화재청, '코리아 인 패션' 프로젝트 진행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한국의 미(美)'를 전 세계에 알리는 '코리아 인 패션(KOREA IN FASHI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코리아 인 패션'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온 궁궐의 아름다운 정경에 한복 고유의 멋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패션 필름과 화보로 구성된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있는 공주의 삶에 현대적 상상력을 가미해, 역동적으로 자신의 꿈을 쫓는 공주의 하루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통 한복에 창의성을 더해 신한복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유명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차이킨)이 패션 디렉터로 참여했다. 그는 복은공주, 덕은공주 등 실제 역사 속 공주들의 의상을 모티브로 공주의 삶을 다채롭게 풀어냈다. 특히 '코리아 인 패션'은 한국 건축 문화의



정수인 궁궐의 다양한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복과의 조화를 통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코리아 인 패션' 영상과 화보는 코로나19로 지친 대중들이 비대면으로 우리 한복과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의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제4회 전라북도 아리움 아버지 합창 경연대회

아름다운 아리아의 선율

겨울밤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아리아의 선율

일시: 12월 26일 저녁 7시부터
장소: 서도프라자 10층 '이룸' 공연장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